



“우리 송편이 최고야” 추석을 보름여 앞둔 5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우리 송편이 최고야’ 행사에 참가한 다문화 가족 여성과 2세들이 한복을 입은 채 송편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 골프 취미 간섭 말라”

부하직원이 원장 폭행...경찰 출동 ‘소동’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부하 직원이 원장을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5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원장 박모(58·4급)씨가 김모(58·6급)씨에게 폭행 당해 입술을 다쳤다. 박씨는 이날 김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불러 골프 치러 4시간째리 휴가인 반가를 자주 낸다고 지적하던 중 김

씨와 말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개인 취미에 간섭한다”고 따지면서 박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고의로 때린 적은 없으며 몸싸움 중에 박씨가 다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사무실에서 싸움이 났다”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홍희기자 glee@kwangju.co.kr

‘한빛원전’ 점점 커지는 불안감

계약보다 싼 보온재 납품... 98억원 편취한 업체 대표 구속

국가보안등급 최고 시설인 한빛(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무허가 부품 반입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부산지점 동부지점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4일 원전·화력발전소에 계약보다 싼 보온재를 납품해 98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사 대표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빛·고리원전에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방수용 보온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가량 싼 비용으로 보온재를 납품해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씨는 NEP 인증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인증이 없는 제품을 납품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결국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으면서도 한수원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앞서 한빛원전 2호기의 경우 증기발생기 부실 보수 사실이 드러나 가동 정지를 앞두고 있다.

한수원은 당시 한빛 2호기 제2호 차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진행된 증기 발생기 수리 균열을 용접할 때, 보수

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한빛 원전이 국가 최고 보안 시설이라는 점에서 원전 당국의 부실한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엄격한 통제·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원전 가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면서 원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지난해 말 대규모 부품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한 뒤 도입한

‘원전기자재 추적관리 IT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원전 내 모든 기자재의 입고에서 출고, 사용, 폐기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외부 용역 업체가 사용하는 부품(자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형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원안위의 결론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니웃침 (8881)



‘태극기+인공기’ 디자인 작품 철거 논란

‘평화기원’ 새 한반도기 제작 89점 중 11점이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재단 ‘오해 살 우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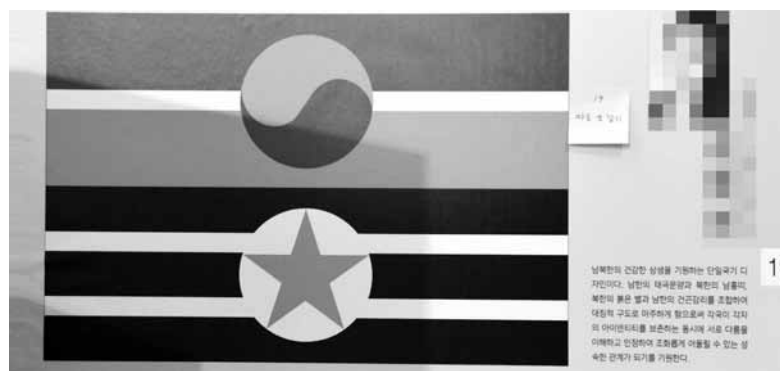
광주비엔날레재단이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하루 앞두고 북대륙 남북한 동시입장 기원 국기 디자인 색션의 작품 89점 중 인공기 모양이 디자인된 작품 11점을 철거해달라고 기획자인 강철 큐레이터에게 요청했다.

강철 큐레이터는 해당 작가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작품들은 태극기와 인공기 무늬가 새겨진 손이 악수하는 모습과 태극기와 인공기 등이 절반씩 디자인된 작품 등이다.

하지만 해당 전시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남북한의 동시입장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일부에서는 비엔날레 재단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투표를 거쳐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공식 사용 요청될 계획이었다.

강철 큐레이터는 “이날 오후 비엔날레재단에서 인공기가 연상되는 작



광주비엔날레재단이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하루 앞두고 5일 북한 인공기 이미지 작품 11점을 철거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품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해당 작품을 만든 작가들에게 통보하고 패어낼 계획”이라며 “전시 기획자는 사회적 약자고, 우리 사회가 여자가 지닌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현 시국이 민감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어등산... 휴대폰 안터져 등산객 “속터져”

이동통신사 기지국 없어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이 ‘휴대폰 불통지역’으로 등산객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어등산과 운수동 경계에 있는 해발 293m 높이의 어등산은 광주 도심과 가까운 주말과 휴일이면 평균 1500여명 내외의 등산객들이 찾고 있다.

어등산 등산로의 경우 광주여대 주차장 입구에서 정상인 석봉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는 등 사계절 산행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분문여고 입구에서 출발하는 또다른 코스는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찾는 레이스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이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 통신사

들이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다 보니 어등산 일대가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불통 지역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울 뿐더러 장시간 산행에 급한 연락을 주고 받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모(52·광산구 송정동)씨는 “매 주말이면 어등산을 찾고 있으나 급한

불발이 생겼을 때 휴대폰이 터지지 않아 낭패를 봤다”며 “이동 통신사들이 등산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어등산 중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큰문제가 없는 반면 정작 등산로에 들어서면 불통지역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마저 차별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어등산을 즐겨찾는 등산객들이 해당 이동통신사에 수차례휴대폰 불통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묵묵부답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김홍희기자 kimyh@

공구로 위험 편의점 강도 야구 배트 휘두르자 도주

광주광산경찰은 5일 편의점 주인을 공구로 위협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송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삼암동 C편의점에서 주인 박모(45)씨를 1m 길이의 철제 공구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송씨는 박씨가 야구 배트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최홍철기자 srchoi@kwangju.co.kr

동거녀 체크카드 훔친 물품치 20대

○동거녀의 집에서 체크카드를 훔친 뒤 돈을 인출해 생활비로 쓴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대모(29)씨는 지난 7월 29일 새벽 5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 사는 동거녀 김모(24)씨의 집에서 김씨를 잠을 자는 틈을 타 체크카드를 훔친 뒤 편의점 등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빼내 달아났다는 것.

○대씨는 평소 김씨의 부탁을 받고 현금 인출 심부름을 자주 다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대씨를 검거.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천경매특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062-605-1114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수시 1차	수시 2차	정 시
인 문	신 학 과	20	10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3	1
사 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8	7	5
	유 아 교 육 과	10	7	3
예 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6	4	5
	실 용 음 악 학 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5	-	5
	총 계	72	31	39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수시 1차모집 : 원서접수: 2013. 9. 4(수) ~ 13(금) · 전형 일: 2013. 9. 26(목)
- 수시 2차모집 : 원서접수: 2013. 11. 11(월) ~ 15(금) · 전형 일: 2013. 11. 21(목)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월) · 전형 일: 2014. 1. 3(금)

■특별전형

- 전학과 :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전형
- 유아교육과 :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조로 36

www.kwangshin.ac.kr